

【 해외금융뉴스: 일본 】

주요 생보사, 안전투자 중심 운용 계획 밝혀

- 최근 집계된 생명보험 4사(니혼생명, 제일생명, 메이지야스다생명, 스미토모생명)의 FY2009 운용 계획에 따르면, 일본 주요 생명보험회사들은 2009년에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 투자에 주력할 것으로 분석됨.
- 상기 메이저 생명보험사들의 일반계정 자산 잔고는 2008년 3월말 기준으로 니혼생명이 약 44조엔, 제일생명이 약 30조엔, 메이지야스다생명이 약 23조 3,100억엔, 스미토모생명보험이 약 20조엔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 각 사가 공개한 FY2009 운용 방침에 따르면, 니혼생명은 올해 늘어날 자금 1조엔 대부분을 초장기채나 사채 등과 같은 채권에 투자하기로 했으며, 제일생명도 채권투자를 중심으로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로 함.
 - 메이지야스다생명은 국내채권에 4,600억엔, 스미토모생명도 수 천억엔 규모의 채권매입 계획을 밝히는 등 채권투자를 늘려 안정적인 수익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며, 니혼생명과 메이지야스다생명은 글로벌 금융불안 지속으로 정확한 외환시장 예측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환율변동 리스크를 회피해 투자할 수 있는 헷지외채 투자를 확대할 방침임.
 - 작년 저조한 투자수익을 거두었던 주식투자의 경우, 메이지야스다생명은 총자산의 11%에 달했던 주식 비중을 10% 이하로 축소하는 한편, 가격변동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 종목을 과감하게 교체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함.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회복을 낙관하고 있는 니혼생명은 지금이 저가매수의 적기라고 판단해 오히려 주식투자 비중을 늘리며 공격적인 자산운용계획을 밝혀 향후 결과가 주목됨.

일본 주요 4대 생보사 2009년도 운용 계획

	니혼생명	제일생명	메이지야스다생명	스미토모생명
채권(국내)	비중 대폭 확대	비중 소폭 확대	비중 대폭 확대	비중 대폭 확대
환헷지 외채		비중 유지		미정
국내주식	비중 대폭 확대	비중 유지	비중 대폭 축소	미정
외국주식			비중 소폭 축소	미정
부동산	비중 유지	비중 유지	비중 유지	비중 유지

자료 : FujiSankei Business | 4/23 기사 참조

(로이터 4/17, FujiSankei Business |4/23)